

##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라스도" (고후 5:17)

##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 12개 교회학교 교사 합동 철야기도회

유치부 교사 연구수업 · 워크숍, 교사간 친교 위한 공동체 훈련도

20일 오후 9시-21일 오전 6시

12개 교회학교 교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함께 드리는 철야기도회가 20일(금) 오후 9시부터 21일(토) 오전 6시까지 2·3층 예배실에서 열린다.

이번 기도회는 천국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교회학교가 보다 효과적인 영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교회학교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기도회에서는 유치부 교사들이 준비한 연구수업 및 사례발표와 부서별 공과 공부 워크숍 등을 통해 교회학교 교사의 자질 향상과 효과적인 공과지도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공동체 훈련 등을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교사간의 교제도 함께 갖기로 했다.

교사철야기도회는 올해부터 각 부서별로 매월 한 차례 금요 심야기도회 후 모이고 있다. 또 매월 한 부서씩 철야기도회 때 연구수업을 진행하여 다른 부서 교사들도 이에 참

관하였으나 12개 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철야기도회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올해 교사전체 철야기도회를 이번과 오는 10월 두 차례로 계획하고 있다.

## 제 1차 교회학교 교사 철야기도회 프로그램

| 날짜        | 시간            | 내용                | 장소    | 담당     |
|-----------|---------------|-------------------|-------|--------|
| 3. 20.(금) | 21:00 - 22:30 | 경건회(금요심야기도회)      | 2층예배실 | 박귀환 목사 |
|           | 22:30 - 23:00 | 휴식 및 친교           | 3층예배실 | 봉사부서   |
|           | 23:00 - 24:00 | 연구수업 및 사례발표       | 3층예배실 | 유치부    |
| 3. 21.(토) | 00:00 - 01:30 | 부별 공과공부 워크숍 및 기도회 | 각 부서별 | 지도교역자  |
|           | 01:30 - 02:00 | 휴식 및 간식           | 각 부서별 | 봉사부서   |
|           | 02:00 - 03:00 | 전체교사 소개           | 3층예배실 | 김정현 목사 |
|           | 03:00 - 04:00 | 공동체훈련             | 3층예배실 | 민영수 목사 |
|           | 04:00 - 05:00 | 전체교사기도회           | 3층예배실 | 이순환 목사 |
|           | 05:20 - 06:00 | 폐회예배(새벽기도회)       | 2층예배실 | 이성득 목사 |

## 제 13학기 목회자세미나 "경건과 절제" 주제로

| 제 1교시                     | 제 2교시                                |
|---------------------------|--------------------------------------|
| 로마서강해<br>이종윤 목사<br>(서울교회) | 경건주의 운동과 교회갱신<br>배정식 교수(한일신대)        |
|                           | 경건과 리더십<br>김기홍 교수(아신대)               |
|                           | 1907년 한국교회 회개운동과 사회변화<br>민경배 교수(연세대) |
|                           | 한국교회 각성운동의 방향<br>이만열 교수(숙대)          |
|                           | IMF 시대의 목회자의 의식변화<br>교무송 목사(열린전원교회)  |
|                           | 목회자의 언어습관과 강단<br>최래욱 교수(한양대)         |
|                           | 목회자의 의상과 절제<br>정장복 교수(강신대)           |
|                           | 건강과 절제생활<br>김일순 교수(연세대)              |
|                           | 목회자의 기정과 교회 관리<br>이연옥 이사장(서울여대)      |
|                           | 목회자의 경건과 교회 부흥<br>이상근 원로목사(대구제일교회)   |

▲목회자신학세미나 제 13학기 프로그램

제 13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3월 30일(월) 강남YMCA대강당에서 시작된다. 이번 학기는 6월 1일(월)까지 10주간 매주 월요일에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학기의 주제는 "경건과 절제"이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는 "국난을 당해 풍랑만난 조국배처럼 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조국을 구원하려고 목회자의 영적 무장을 위한 신학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목회자들이 참가하여 한국교회갱신의 방안을 모색하는 목회자세미나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봉사자들의 힘으로 원활히 진행돼 왔다.

이번 학기 목회자세미나도 식사준비를 비롯 차량관리, 안내 등 각 분야에서 수고하실 봉사자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 ◆ 순례자 킬링 ◆

## 성경의 권위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드릴 때 가능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이므로 성경저자는 하나님이시며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된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임을 잊지 말자. 영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영감은 어떤 예술가나 명사가 받은 영감과 다르다. 성령이 감동하여 거룩케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 신성과 인성이 있었듯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성경은 계시된 말씀이므로 정확무오하며 영원불변한 고로 권위가 있다.

모든 권위가 흔들리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권위로 표준을 삼고 살자.

## 이사야

# 여호와와의 짝

4장 2 - 6절

본문은 2장에서부터 시작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한 단원을 마치는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날'에 라는 말을 그의 예언 중에 7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 날, 심판이 임하는 날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그 날'은 이메시아의 날을 의미합니다.

### 1. 메시아의 날

"그 날에 여호와와의 짝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2절).

여호와와의 짝이란 메시아를 말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은 "저는 돌은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삼하23:4)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록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마치 짝이 돌아나올 때처럼 연약해 보였지만 아름답고 영화로우셨습니다.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못박혀 죽으셔야 했던 예수님이 여호와와의 짝으로 예루살렘에 오시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여호와와의 짝으로 오시는 그분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방법으로 예언했습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요" (렘23:5).

"그 날 그 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렘33:15).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사28:5).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사60:19).

성도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와의 짝'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또한 짝은 여호와의 것, 즉 짝의 기원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와의 짝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영화롭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여호와와의 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짝 즉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고 영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여호와와의 짝'이라 했고 뒤에서는 '그 땅의 소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호와와의 짝'이 메시아의 신성을 계시한 것이라면, '그 땅의 소산'이란 메시아의 인성을 계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와의 짝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녹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광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요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동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사42:6).

이종울 목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입니다.

### 2. 거룩한 백성이라 칭함

3절에는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생존한 자 중에 녹명된 모든 사람들의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이들은 거룩하다고 칭함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20:15).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시온은 교회 곧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의 짝이 임하는 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모든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입니다(출19:6). 그리고 기록된 이름이 거룩한 성에 있다고 했습니다(렘13:9, 렘22:30). 그런데 3절에 보면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라"라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예정교리입니다.

### 3. 하나님 백성들이 성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광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4절).

주님께서서는 시온의 딸들의 죄를 영으로 씻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죄를 소멸시키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화를 말하는 것이며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기인한 것입니다.

### 4. 교회를 주심

하나님께서서는 환란을 통해서 교회를 성화시키실 뿐 아니라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순종케 한 다음에 그 모든 영광 위에, 다시 말하면 교회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막은 보호를 상징합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와의 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라 칭함을 얻을 것이며 거룩한 자리로 가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특별히 피난처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여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우리는 지금 - 베드로 제 1선교회

## “토요일 새벽기도후 산에 오르니”

허상한 (집사, 2교구)



매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우리들의 발걸음은 청계산으로 향한다. 정상(대봉)에 올라 잠시 기도회를 갖고 하산하기까지 약 2시간 내지 2시간 30분이 소요된다. 거기서 폐회하여 각자의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간다.

작년 10월, 베드로 1선교회를 중심으로 이 모임은 시작됐다. 대체로 부부가 함께 하고, 다른 선교회 회원들도 동참하고 있어 어떤 때는 참석자 수가 20명 남짓 되기도 한다.

우리 선교회가 토요일마다 산에 오르는 일에는 몇가지 유익이 따른다. 그 첫째가 새벽기도회에 나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주 내내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토요일 하루는 새벽기도회에 나올 수 있게 된다.

또 성경에서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하신 '육체의 연습'을 경험하게 된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에 오르는 일은 참 좋은 운동이어서 토

요일마다 온 몸이 기분 좋은 나른함이 퍼지곤 한다.

무엇보다 힘든 길을 서로 밀어주고 끌어당기며 함께 오르면서 부부간의 대화도 많아졌고, 회원들과 가까워지게 되었다. 사랑이 모락 모락 피어나게 된 것이다.

지난 겨울 동안 대체로 추운 날씨에 장비를 갖추었다고 해도 미끌어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힘겹게 산을 오르곤 했다. 그래도 정상에 섰을 때의 그 상쾌함이란!

이제 봄이 되었으니 더 많은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모임은 우리가 누리는 몇 가지 유익을 함께 하시고픈 성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모임이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토요일 새벽기도회 후 베드로 제 1선교회원에게 한마디만 하시면 된다. “나도 같이 갑시다”라고.

■ 유치부성경학교를 마치고

## 하루 해가 짧기만 했던 날

윤도희(유치부 교사)

“날마다 새롭게 변화해요.”

98년도 유치부 겨울성경학교는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열렸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무척 알차고 바빴다. 프로그램도 무척 다양한 아이들이 무척 좋아했다.

인형극은 선생님들이 직접 준비했다. 십자가 앞에 죄를 내려놓고 난 후 면류관을 받는 장면을 연출했다. “예수님은 슬퍼요, 예수님은 기뻐요”라는 작은 제목 아래 아이들이 직접 고백을 써붙였다. 또 성경 속 변화된 인물을 찾았다. 사다리도 타고 삭개오 아저씨 이야기도 들었다. 커다란 동화책도 읽었다. 또 사탕도 먹고 장애품을 지나 풍선을 터뜨리는 미니 올림픽 시간도 있었다.

특히 미니올림픽 때는 선생님들도 너무나 열심히 뛰었다.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모두 하얗게 가루를 묻히고 사탕을 입에 문채 가득히 웃음을 머금고 막을 내린 하루였다.

“카레를 두 그릇이나 먹고 맛있다는 아이들을 대신해 수고해 주신 집사님,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98년은 새롭게 변화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 제 13학기

### 서울성경대학 등록 접수

수강료는 과목당 오천원이며 이번 학기 첫 수강자에 한하여 입학금은 오천원이다. 등록 문의는 사무국.

### 서울성경대학 제 3학기 교과과정표(3~6월)

| 강좌   | 요일 · 시간       | 강사     | 개강일    |
|------|---------------|--------|--------|
| 사사기  | 월요일 오전 10시    | 김정현 목사 | 3월 30일 |
| 에스더  | 월요일 오후 8시     | 민영수 목사 | 3월 30일 |
| 히브리서 | 화요일 오전 6시     | 이순환 목사 | 3월 31일 |
| 빌립보서 | 화요일 오후 8시     | 박귀환 목사 | 3월 31일 |
| 요기   | 목요일 오전 6시     | 이종윤 목사 | 4월 2일  |
| 음악교실 | 목요일 오후 7시 30분 | 이연숙 집사 | 4월 2일  |

수년전 미국의 한 젊은 경제학자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대해 이는 낙후된 경제 구조에 양적으로만 투입량을 늘린 결과일 뿐이며 따라서 곧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입장에 있던 사람들은 끄덕도 하지 않았다. IMF의 수혈을 받아야만 살게 된 지금도 그 부류의 사람들은 별반 생각이 바뀐 것 같지는 않다. 나와 내 주위 몇몇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인데 왜 경제구조를 바꿔 고생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수천년전 요나가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성에 가서 그 성의 멸망을 예고하고 회개하라는 외쳤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성 사람들은 요나의 기대와는 달리 편한 집과 왕궁을 내버려두고 재에 앉았다. 일반 백성뿐 아니라 왕도 “지금 잘 사는데 뭘 수고스럽게 회개나 뭐니 하나”고 하지 않았다. 그들이 멸망직전에 받은 구원의 값은 그 조그만 수고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 되레 요나만 뜨거운 햇살에 괴로워 해야 했던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잃는 것은 돈만이 아닐 것이다.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초점을 흐려 믿음과 확신을 상실하는 데 있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귀에 익을 만해지니 다시 예전과 다름없는 소비행태가 고개를 든다고 걱정을 하는 소리가 높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경제 시스템의 개편에 대해 지적하는 주장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다소 전문적인 용어로 포장되어 있는 탓도 있고 웬지 내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일 것이다. 대량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매스미디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언론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런지도 모른다.

아마도 요나의 말에 회개한 사람들은 요나의 혹 화려한 옷매무시나 혹 능수능란한 언변 때문에 뉘우친 것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셨을 때는 이미 니느웨 사람들이 성안에 된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경제상황이 어려워니 여기 저기 회개와 각성 집회도 많이 열린다. 우리 자신에게 먼저 회개를 촉구함은 당연하다. 동시에 자신의 구체적 이익과는 배치되더라도 세상에 대해 변화하라고 외칠 수 있는 확신도 있는지 물어볼 일이다.

◆ 각 부서 이모저모 ◆

◇ 사랑부= 이옥동, 이삭 두 어린이가 뇌에서 물을 빼내는 수술을 하고 회복을 기다리며 입원해 있다. 이들은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이 수술을 해야 하는 병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옥동 어린이는 이번 수술 후 염증이 생겨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요청된다. 사랑부 교사들은 11일(수) 11부 예배 후에 기도회를 갖고 이들의 쾌유를 위해, 그리고 사랑부와 교회를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했다. -제오복-

◇ 유아부= 교사들의 좌석배치를 바꾸었다. 교사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충성과...' 등과 별로 모여 앉아 예배, 기도회 등을 가지면서 같은 과에 속한 교사들과 더욱 친밀해지고 행정처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최재춘-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 민족교회를 위한 나의 봉사

### 제 13학기 목회자세미나에 수고하실 분 모집

3월 30일(월)부터 시작될 13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한국교회경신연구원 ☎ 517-7651)으로.

| 할 일                   | 요일, 시간, 봉사할 곳               | 필요한 인원           |
|-----------------------|-----------------------------|------------------|
| 식사 재료 구입              | 금요일 혹은 토요일 오전               | 두 분 (운전 가능한 분)   |
| 강의안 편찬, 제본            | 토요일 오후 3-5시, 사무국            | 여집사님 두 분         |
| 교재 및 유인물 준비           | 주 일 소망부 집회 후, 소망부실          | 모세선교회원           |
| 식사 준비                 | 월요일 오전 6시 - 10시, 별관         | 한나, 에스더 회원       |
| 집무리고 이동하기             | 월요일 오전 9시 - 11시, 사무국        | 남자성도 다섯 분        |
| 식탁, 강의실 의자 설치, 방송실 점검 | 월요일 오전 10시 - 12시, YMCA      | 남자성도 스무 분        |
| 차량관리(Y정문, 지하, 양지 아파트) | 월요일 오후 1시 - 3시, 5시 - 6시     | 남자성도 여덟 분        |
| 안내(현관, 엘리베이터, 강의실)    |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 안내위원 열 두 분       |
| 등록 및 접수               | 월요일(첫 두주) 12시 - 오후 4시, YMCA | 열 두 분(3인 1조로 4조) |
| 테이프, 서적 판매 및 관리       |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 여집사님 네 분         |
| 교회에 남아서 돕는 일(전화안내)    | 월요일 오후 1시 - 4시, 사무국         | 여자성도 한 분         |
| 배식, 음료수 대접            |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 한나, 에스더 회원       |
| 교재 및 유인물 배부           |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 모세선교회원           |
| 식탁, 접수탁자, 교회물건 철수     | 월요일 오후 3시 30분 - 4시 20분      | 남자성도 열 분         |
| 강의실 의자 철수, 청소, 정리     | 월요일 오후 5시 30분 - 6시, YMCA    | 남자성도 스무 분        |
| 철수한 교회 물품 정리          | 월요일 오후 4시 - 7시, 사무국         | 남녀성도 각 세 분씩      |

#### 목회자동정

- ◆이종운 목사는 9일(월)에 출국하여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세계로잔총회에 참석하고 토론토지역 연합집회 및 뉴욕 126기도모임을 인도하고 20일(금) 귀국할 예정이다.
- ◆김영한 목사(장년부 지도)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 초대 대학원장에 취임했다.

오늘 봉사자를 위한 점심식사는 하인선·남태순 집사 가정에서 제공

####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서울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나라와 민족을 위해
2. 교회학교 교사를 위해
3. 사순절 기간 동안 참된 회개와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 예배 및 집회

| 구 분    | 시 간                                     |
|--------|-----------------------------------------|
| 주일 예배  | I 부 오전 9시<br>II 부 오전 11시<br>III 부 오후 2시 |
| 찬 양 예배 | 주일 오후 5시                                |
| 수요 예배  | I 부 오전 11시<br>II 부 오후 7시                |
| 금요기도회  | 오후 9시                                   |
| 새벽기도회  | 매일 새벽 5시 30분                            |

#### ■ 교회위치

